

목어

금메달의 값

한참 때는 값이 있지만, 올림픽 얘기를 해야겠다. 며칠 전 문득 TV를 보다 서글픈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호주의 시드니에서 열렸던 하계올림픽에서 탄 금메달의 값이 너무 차질이 난다는 보도였다. 성하지 못한 몸으로 국가 지원은 물론 변변히 잠잘 방조차 없이 힘겹게 훈련해서 하계장애인올림픽에서 따온 금메달의 값이 일반 올림픽의 그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은 몸이 건강한 사람의 올림픽에 대해서는 방송도 시골벽적으로 하루종일 생중계에 녹화방송까지 빠짐없이 꼼꼼히 챙기고, 신문 역시 연일 1면 머리기사였다.

반면에 장애인올림픽에는 반의 반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민은 장애인올림픽에서 몇 개의 메달을 땀으며,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지나갔다.

국가를 대표해 나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서도 정작 울고 있는 장애인 메달리스트의 아픔을 보면서 한국이 정말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인지 의심해볼 수 없었다. 사적을 비롯한 몇 개의 종목에서 탄 금메달에서는 일반인이 얻은 점수보다 더 높아 오�히려 일반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실력이었다고 한다.

장애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고 않고 극복하여 획득한 금메달이 더욱 값지 않은가. 국제 무대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했어도 장애인들이 더 높이 우리 민족의 기개를 펼친 것이 아닌가.

나 자신도 언제 어떻게 장애인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겠지만, 장애인을 혐오스럽게 보고 장애인 시설을 혐오 시설로 간주하여 경멸시키는 국민정신건강의 척도가 아닐까 한다.

〈일반경에 모든 중상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고 하였는데, 장애인도 성불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장애인 고용법을 국가기관에서 기피하고, 거러서서 건물에서나 모든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책은 제대로 집행되어 애초에 목적했던 성과가 달성될 때 의미가 있다. 하루속히 장애인도 일반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자기반성' 환경위기 극복

불교단체 제안 '환경파괴 참회' 무엇을 담았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지리산살리기·담백지화 범불교연대, 불교환경교육원 등 13개 불교단체가 11월 30일 조계종 불교회관에서 가진 '사찰의 환경과 파괴에 대한 참회와 불교생명운동'을 위한 제안이란 주제의 기자회견을 불교 환경운동가상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간 심정적으로만 사찰 내부의 환경훼손에 대해 우려를 표하던 불교 환경단체들이 종단에 대해 처음으로 용기있는 발언을 한 점, 소극적인 환경운동에 머물던 불교계가 자기반성을 통해 실천적 생명운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종단이 불교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진지하게 수용하려는 태도를 갖기 시작한 점 등이 그것이다.

불교단체들의 이번 '환경 반성문'은 최근 가야산의 골프장 및 관동도로의 건설, 범어사 앞 아파트 개발, 정혜사

의 석산 개발과 심복사 근처의 쓰레기 매립지 건설, 장경사 인근 송전탑 건설 등 지방자치체 실시 후 산사 인근의 개발로 인해 불교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사찰 외부로부터의 환경파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사찰 스스로 환경을 파괴한 일들에 대해 깊이 돌아보며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문여로부터 지리산담 백지화운동을 이끌면서 시민환경운동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불교계가 자기반성을 통해 환경·생명운동의 사상·실천의 중심

으로 우뚝 서겠다는 발원도 담고 있다. 환경위기시대를 사는 인류는 이미 지구적 가치관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 동양사상 특히 수행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는 불교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스님과 학자, 불자들은 단지 이에 대한 자부심만으로 그럴 뿐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는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책임감도 갖지 못한 것이다.

'심정경, 국토청정'의 교리에 따르면, 환경오염은 결국 인간의 마음이 혼탁한 결과이며, 불자들이 올바르게 역할하지 못해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자들은 물질적인 중요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나 깨달음을 소중히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13개 불교단체는 11월 30일 조계종 불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찰의 환경파괴에 대한 참회와 불교생명운동을 제안했다.

것이 환경운동가들의 생각이다. "사찰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바로 사찰의 청정한 수행기풍을 진작시키는 것이다. 한국 불교를 지키고 살리는 일이다. 환경문제는 단순하게 자연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참된 행복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며, 우리가 정말 부처님처럼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다."

김재경 기자(jkim@buddhopia.com)

남산 안팎 개발억제 '청신호'

경주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록 의미

'부처님 나라', '노천 박물관'이라는 경주 남산을 포함한 경주역사 유적지구가 11월 29일 제24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경주 남산의 가치와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남산 안팎에서 진행되는 개발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월성지구를 가로지르는 고속철도나 남산 내 취락지구 등 개발과 파괴 위험을 받고 있는 경주 일대 보존에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문화재 관계자들은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고도(古都) 경주에 대한 총체적 보존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면 6년에 한번씩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세계유산협약'이 있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많은 규제 속에 살고 있는 경주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천년고도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며 "정부도 이를 의식해 남산을 비롯해 방학·대리시·고도(古都)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남산보존 자원봉사 운영, 종단차원의 신라 불교문화 연구기관 설립 등 근본적인 접근도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문화재 전문가들은 남산 내 폐사지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총 2천880ha

에 이르며, 여기에는 국보·지방정 불교문화재 30여 기가 있는 '남산지구'(사적 제311호)를 비롯해 첨성대와 계림, 내물왕릉이 있는 '월성지구', 황남리·노동리·노서리 고분군이 밀집된 '대릉원지구', 황룡사(사적 제6호)와 분황사 석탑(국보 제30호) 등이 있는 '황룡사지구', 명왕산성(사적 제47호)이 남아있는 '산성지구' 등이 있다.

세계유산 가운데 불교관련 유산은 총 28건. 중국은 막고굴, 포탈라궁, 낙산대불과 아미산 유적, 노산의 불교사원 등 4건이, 일본·캄보디아·방글라데시는 각각 범종사, 앙코르, 파하르푸르 유적지 등 1건이 올라왔다. 태국은 수코타이, 아이우타이 등 2건, 인도는 아잔타, 엘로라, 산치 등 3건이 등록됐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남산지구의 칠불암 미애석불.

광고수주 자율 움직임... 종교방송사들 비상

"방송사 미디어렐 출자 금지"

방송사 수익의 근간이 되고 있는 광고시장의 광고수주 자율체제 전환 움직임이 일고 있어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종교방송은 자율광고 경쟁에서 일반 방송에 뒤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 그러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든 방송에 똑같이 적용되는 방송광고시장의 완전 자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혁위는 11월 17일과 24일 규제심사를 하면서 방송광고시장 완전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교방송을 비롯한 기독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등 4개 종교방송사 사장은 11월 28일 코리아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방송사 미디어렐 출자 금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종교방송 사장단은 규제개혁위의 방송광고시장 자율화 움직임을 전면 거부한다는 원칙에 인식을 함께 하고 방송광고법이 상업주의적인 정책의 방향이 잡힐 경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공동법회와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전면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사장단들의 방송광고판매회사에 대한 출자 금지와 방송사의 다양성 확보 장치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규제개혁위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보낼 것도 결의했다.

사장단은 회의가 끝난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미디어렐의 도입취지에 맞게 방송사가 광고판매회사에 직접 출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방송사 광고비

확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현실은 광고시장의 광고수주 자율체제 전환 움직임이 일고 있어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방송전과와 방송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렐은 광고주의 위탁을 받아 광고제작사가 만든 광고를 개별 방송사에게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곳이다. 81년 이전에는 각 방송사가 광고 영입을 독자적으로 결정했으나 방송사의 지나친 경쟁에서 오는 폐해를 막기 위해 82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로 창구를 단일화했다가 이번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입법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민영 미디어렐의 등록제 방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각 방송사마다 미디어렐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 상업성이 강한 일반방송사는 광고 수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종교방송은 엄청난 장비 투자에 비해 수익이 적은 편이다. 현행 방송사들은 별도의 미디어렐을 설립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방송사들이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 시장경쟁에서 제외된 현행 체제를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반방송의 상업성과 종교방송의 공익성을 같은 잣대로 비교해서는 안되며, 특히 방송환경에서의 종교가 갖는 공익성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주영 기자(jkim@buddho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회장)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 신촌동리광림 및 그 일선 요양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o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마루' www.yosiamaru.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종정겸 재단이사장 특별 담화문

삼보에 귀의하십시오
천애하는 일불종도 여러분! 그리고 전세계 방방곡곡에 계시는 일불문도 여러분!
노남은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의 창종주이신 일불존자의 후계자로 종단에서는 일불존자의 총통을 계승한 제2대 종정이고 재단에서는 일불존자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킬 책무가 있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작금에 저의 종단내외에서 저의 종단 공식 호칭을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이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상당히 논란이 있고 또 이로 인하여 마치 종단이 내분이 일어난 것 같은 인상을 종단내외에 풍겨주고 있기에 이에 노남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어 이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종정 제23조 7항에 명시된 종정의 권한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정관 제9조에 정해진 재단 이사장의 직권에 의거 우리 종단과 재단은 하나이기에 종단이던 재단이던 불문하고 공식명칭은 물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으로 하고 약칭은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또는 '일불선교종'으로 사용할 것을 종단내외에 엄숙히 천명합니다.

그러나 노남은 종도들의 공식 대의기구가며 종정기관인 중앙총회에서 지난 3월 우리종단의 공식명칭을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이 아닌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으로 하자는 그 결의사항을 전연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명하신 우리 중앙총회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였기에 지난 3월의 중앙총회의 결의사항이 노남의 마음에 사실상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남은 지금까지 그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노남의 의견을 유보한채 중앙총회의 결의사항을 존중하면서 시행해 오던 것을 묵묵히 지켜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노남의 내심은 사실 편치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중앙총회 위원들의 그 결의 사항이 아무리 옳다고 하지만 그래도 선

대(先代)로부터 사용래는 우리 종단의 공식명칭을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에서 하루 아침에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으로 하라고 하니 이는 마치 선사(先師)에 대해 죄를 짓는 것 같은 석연찮은 마음이 항상 이 노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왔고 또 종단 안팎에서 종명으로 인한 논의가 분분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노남은 고심 끝에 단안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 중앙총회위원들이 지난 3월 임시 중앙총회에서 종단의 공식명칭을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이 아닌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으로 하자는 그 결의안이 잘못된 것이거나 또는 세간법 차원에서의 법적 이론이나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앙총회의 그 결의안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보겠다는 개혁적인 결의안이었던 것을 이 노남이 몰려가 없습니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중앙총회위원들의 그 수준높은 결의안을 이해하는 대중들도 있지만 사실상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들도 있고, 또 자의든 타의든 간에 우리종단을 떠난 해종행위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러한 상황을 왜곡되게 부추기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들을 직시할 때 노남이 고쳐야 할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종도 여러분께서는 심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천애하는 일불종도 여러분!
우리 일불선교종은 일불존자께서 평생을 한국불교를 세계화하고 세계불교를 한국화하시기 위한 그 위대한 원행(願行)과 또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평생을 기구(祈求)하신 그 호국불교의 염원(念願)들이 알아야 맺혀 이룩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이념 종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방방곡곡 아니 국내외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1만여 일불문도들의 종가(宗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

불선교종은 세계불교의 명문(名門)답게 또 호국불교의 기수(旗手)답게 선사인 일불존자의 유지(遺志)를 높이 받드는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니 노남의 이러한 충정을 심분 이해해 주시어 향후 종단의 공식명칭에 대하여 더 이상 왈가 왈부 하지 않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노남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일불종도들에게 또 한가지 간곡히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불종도들은 선사인 일불존자의 이념과 유지를 봉행하는 봉찬행자(奉贊行者)들이기에 조석 예불시 조사단(祖師壇)에 다음과 같은 예를 꼭 거행할 것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심귀명례 세계불교 초대법왕 삼장법사 일불존자 (志心歸命禮 世界佛教 初代法王 三藏法師 一願尊者)
지심귀명례 일불선교종 창종주 삼장법사 일불존자 (志心歸命禮 一願禪教宗 創宗主 三藏法師 一願尊者)
지심귀명례 세계일백삼 박사학위 철학박사 일불존자 (志心歸命禮 世界一百三 博士學位 哲學博士 一願尊者)
사화동용일각생(蛇化鄧龍一角生) 송담풍우만인경(松潭風雨萬人驚)
남성춘지마운진(南城春至魔運盡) 북령야래선일명(北嶺夜來禪月明)

일불종도 여러분! 그리고 전세계 방방곡곡에 계시는 일불문도 여러분!
어려운 앞엔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고 불보살님의 은혜가 증언이시기를 심부름전에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2544 (2000)년 11월 25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종정겸 재단 이사장 봉해 현 기 홍